

섭리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교훈

- 작성일: 2010년 7월 15일 (목)
- 작성자: 주혜인

주님 뜻대로 행해주지 못하는 지도자들과 늘 그 때문에 고통 받으시고 눈치 보시는 선생의 마음이 느껴져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.

예수님께서서는 초창기 선생의 제자라 했던 자들도 그러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의 사명의 촛대가 누구에게 옮겨 가는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.

* 예수님 말씀 *

선생의 마음..

오늘 내가 기도하며 느낀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.

섭리의 많은 자들이 있었다 하나

그들 중 누가 내 마음, 선생 마음 합당하게 헤아리며 그 뜻대로 해준 자가 있느냐.
사랑한다면, 진정 사랑했다면
그리 하였을 것이다.

내 마음 헤아려 내 뜻대로 행해준 선생처럼
그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
선생을 온전히 사랑하였다면 그리했을 것이다.
일련의 사건을 두고
선생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, 그 눈치 보게 하고,
내가 원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건만
그 속 시원히 해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
속상하였느냐?

나는 어찌 하겠느냐.

나는 얼마나 그 속이 상하고
선생은 그 중보자로서 얼마나 내게 민망하며
하늘 앞에 민망하겠느냐.
너희가 그의 제자라 하며 나를 위해 사는 자라 하나
선생 앞에 얼마나 제자로서 그 도리를 다하며,
그 선생의 뜻을 이뤄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으며,
그 뜻이 곧 나의 뜻이며 하늘의 뜻이건만
얼마나 그 뜻대로 살아왔느냐.

그의 손과 발이 되어 뛰어주는 많은 사명자들아,
너희는 나의 육신이자
지금 그 무엇도 스스로 육신으로 행할 수 없는
너희 선생을 대신해 외치고 증거하며
각자의 사역지에서
모두 그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.

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겠느냐.
그리 훈련된 자 몇이나 있겠느냐.

최고로 선생 뜻과 일체 된 자가 지금
가장 무겁고 큰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.
나는 섭리 30년간 사람을 기르며
진정 내가 택해 쓸 자를 찾고 또 찾았다.
그러나 다 열심히 무언가를 해왔으나
다 자기 뜻이었고
그 사랑하는 자 나와 그 육신 되어 행하는
선생의 뜻을 헤아려 몸부림 가운데
그 뜻대로 그 소원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가
많지 않더구나.
그러한 자 있었다면,
기본이라도 갖춘 자가 있었다면
내가 그를 썼을 것이다.

왜 그들이, 초창기의 사람들이
이 섭리사에 존재할 수 없었겠느냐.
그들이 그것을 갖추지 못하였기에
내가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던 것이며
쓰임 받지 못한 그들은 서운함 섭섭함에 사로잡혀
선생 오해 하고 형제 탓하며
그리 영영히 돌아올 수 없는 세계로
스스로 걸어간 것이 아니냐.
갖추었다면 왜 내가 또 선생이 쓰지 않았겠느냐.

지금도 그러하다.

“왜 나는 쓰이지 못할까?
연륜도 나이도 많은데
왜 어린 자를 들어 쓸 수밖에 없을까?”
그것은 그만큼
내가 원하는 것을 갖춘 자가 없는 것이다.
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모두 사랑한다 하겠지만
내가 원하는 것을 행해줄 수 있는 자,
자기를 온전히 비우고
내 생각 곧 선생 생각과 일치 되어
움직여 줄 수 있는 자,
그런 자를 나는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.

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들아,
너희 가운데 아쉬움이 있나니
더욱 그와 일체 되어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해야만
너희의 맡긴 것이 더욱 창대해 지고
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더욱 많은 것을
말길 수 있는 것이다.
지금 너희가 사명의 촛대를 잡고 있다면
목숨 걸고 그 마음과 생각에 너희를 일체 시켜라.

지금 너희가 행할지라도
나는 너희에게 영원히 그 일을 맡긴 것이 아니다.
맡기고 어떻게 행하나 보는 자가 대부분이다.

영원히 사역 받을 자
영원히 나와 일체 될 자이다.
그 촛대를 잡고 자기중심으로 일하거나
나와 선생의 마음을 불편케 하고 눈치 보게 한다면
그에게는 점점 일을 거두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.

내가 오늘 많은 자들이,
왜 초창기 너희의 먼저 된 자들이 그리 섭리에 존재 할 수
없었는지
왜 그리 결국 사명의 촛대를 빼앗기고
생명까지 빼앗겼는지 교훈하며 말하였으니
너희도 이 교훈을 듣고 근신하며
내 일을 행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씀대로 가져야 한다.

나는 지금도 나의 소원대로 내 아버지 소원대로
곧 선생의 소원대로 행해줄 자를 찾고 있다.
아버지 뜻이 곧 내 뜻이고, 내 뜻이 곧 선생 뜻이다.
우리는 일체이며 우리는 동심이다.

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,
너희가 그러한 자가 되어
나의 육신 되어 뛰어줄 역사의 사명자로 우뚝 서주길
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노라.

사랑한다. 또 만나자. 안녕!